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 1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 2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 3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 4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죄 사함받고  
림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2월 12일(수) 기도 담당 : 박재동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96장 ..... 다 같 이

기 도 ..... 고성호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48:1~22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므낏세의 하나님 vs 에브라임의 하나님』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438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2월 11일(화)	창 48:1~22	므낏세의 하나님 vs 에브라임의 하나님
12월 12일(수)	창 49:1~33	12지파의 아비 이스라엘의 마지막
12월 13일(목)	창 50:1~26	족장의 죽음, 하나님의 계속하심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2월 11일 (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구원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학업,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침범한 건강, 경제, 기타 각양의 문제들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성전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의 입당준비도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입당하는 그날, 새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시대에 새문안 제단에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께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실행되어 몸 된 새문안교회가 더욱 흥왕케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 온 땅이 혼란과 피곤함으로 지쳐있사오니,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겨울이 무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겨울도 따뜻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들을 모아 주옵소서.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